

이 작은 다다미 방은 요시다 쇼인(1830~1859)이 에도(지금의 도쿄) 덴마초 감옥과 하기의 노야마 감옥에 투옥된 후, 1855년 12월부터 유폐되었던 곳입니다. 쇼인은 1854년,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미국 해군 매슈 페리 제독의 '흑선'에 오르려 했던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당시 엄격한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도항을 금지했는데, 쇼인은 '흑선'에 오르려고 한 것으로 인해 이곳 자택에 마련된 방 한 칸에 유폐되었습니다.

좁은 방에 유폐된 상황에서도 쇼인은 독서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야마 감옥에서 옥중 강의를 들은 문하생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쇼인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고, 모리 가문은 쇼인에게 본가의 부지 안에서라면 외출을 허용하는 관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부지 내 작은 건물에서 쇼인의 강의를 계속되었고, 그렇게 쇼카손주쿠의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